

바이든, 유가안정·이란압박 두 토끼 잡을까

이달 중순 중동 순방

참모 설득에 어렵게 사우디 방문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남 주목

인권 중시 정권과 상충

이달 중순 중동 순방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 유가 안정과 이란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결정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사됐다.

이명박의 미국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말 카슈그지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

자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사우디 방문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그지가 2018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하러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사우디는 암살 가담자들을 처벌했지만, 서방국들은 그 배후로 무함마드 왕세자를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무함마드 왕세자를 '글로벌 왕따'로 만들겠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사우디의 협력이 불가피해지자 미 행정부는 화해를 모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 관리는 국제유가 안정과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서는 사우디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참모들의 수주에 걸친 설득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을 돌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는 이스라엘의 입

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사우디에 가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강한 입장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우디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더 많은 아랍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할 경우 중동 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장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서도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게 외신

들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6일 중동 순방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사우디를 방문해 걸프협력회의(C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인권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왕세자를 만날 경우 인권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제프 머클리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동 담당인 존 알터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핵심 동맹과의 관계 재조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인사 문제·거짓말 논란

영국 존슨 총리 또 생사기로

'파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할 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으로 인한 달 만에 다시 생사기로 서게 됐다.

특히나 그동안 결을 지켰던 핵심 장관 두 명이 사표를 던지고 '존슨호'에서 내리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존슨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저녁 과거 성 비위를 저지른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을 보수당 원내부총무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핀처 의원은 지난달 30일 술에 취해 남성 두 명을 더듬어 만진 혐의로 원내부총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실은 핀처 의원이 2019년 외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 존슨 총리가 이를 알면서도 올해 2월 원내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실은 1일엔 존슨 총리가 과거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주말을 지내고 4일엔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해결됐거나 정식 문제 제기가 안된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에 5일 사이먼 맥도널드 전 외무부 차관이 존슨 총리가 직접 그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궁지에 몰린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당시 핀처 의원의 성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존슨 총리 발표 직후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한 보수당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명박을 전제로 "존슨 총리는 끝났다"며 "여름까지 버틴다면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 우려 속

유로화 가치 20년 만에 최저

유로화 가치가 5일(현지시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날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1.0281달러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유로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보내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불이 붙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이날 메가와트시(MWh)당 175유로로 전날보다 8% 상승해 지난 3월 초 이후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데릭 할페니 MUFJ 글로벌시장 연구소장은 "에너지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 성장 리스크가 현저하게 커지는데 유로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곳곳에서 물가상승률이 고공 행진하는데도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만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한국 등 40여개국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막을 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한 세계 40여개국 및 1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 40여개국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건하기로 약속했다. /연합뉴스

90년대 中공권력 의한

자녀납치 밝혀달라

14억의 분노 부른 청원

이 산아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시절, 일부 지방 당국이 규정을 초과해 출산한 자녀를 강제로 자녀 없는 가정에 보낸 정황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인 '한 자녀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던 때 이른바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비극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5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시 좡족자치구 구이린시 취안저우현에 사는 탕모, 덩모씨 부부는 1990년대 자신들이 산아제한 규정을 위반해가며 낳은 자녀가 당시 공무원들에 의해 '납치'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공안 당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취안저우현 당국의 답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취안저우현 보건 당국은 지난 1일자 답변에서 해당 자녀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가족계획 정책에 의해 '사회적 재배치'된 것이어서 청원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에서 취안저우현 측은 현 당국이 1990년대에 가족계획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으며, 규정을 위반해가며 출산한 부부의 자녀 중 1명은 '재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과거 공권력에 의한 비인도적 조치가 정책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총리, 국가 파산 공식 인정...“내년까지 곤경”

8월까지 채무 재조정안 제출

2025년까지 27조원 갚아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총리가 자국 경제가 파산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곤경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한때 번창했던 나라(스리랑카)가 올해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고 연료, 식품, 의약품 극심한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우리는 내년에도 곤경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bankrupt country)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8월까지 채무 재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국가 파산 상태로 인해 우리는 채무 유지 가능성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며 IMF가 이 계획에 만족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는 IMF와 협상에서 30억달러(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

로 알려졌다.

IMF는 최근 스리랑카 금융 지원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히면서 스리랑카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야 하고 광범위한 세계 개혁도 단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 4월 약 120억달러(약 15조7천억원)의 대외 채무 지급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까지 거의 210억달러(약 27조4천억원)를 여전히 갚아야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IMF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 대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난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사직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